신년사

종합위험관리로 실질적인 도움드릴 터

말(馬)이 일상생활은 물론 교통, 농경, 전쟁 등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활을 하던 중세국가에 있어 그 나라의 국력은 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유야 여러가지이겠지만 말에게서 갖는 역동적 이미지에 의해서인지 1990년 경오년 한해동안 우리 사회는 참으로 많은 변화속에 지내왔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되어오던 고도의 정보화사회, 산업사회가 더욱 성숙되어왔고 우리의 생활양식 또한 빠르고 새롭게 탈바꿈해 왔습니다. 동서독의 굳건한 장벽이 무너지는 데서 시작된 냉전시대의 종식선언이 그동안 상상하기 힘들었던 북한과의 문화교류까지로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고유가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내경기가 다소 침체되기도 하였고 곳곳에서 과소비와 환경오염에 자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각종 사회범죄가 급증해 결국 범죄와의 전쟁까지 선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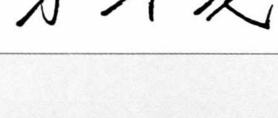
이는 곧 80년대에 보였던 이 나라의 급격한 성장변화와 각 분야의 민주화 풍토가 건강한 사회로 정착되어가기 위한 성숙기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73년부터 시작된 협회의 점검 및 보험, 홍보활동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양상을 살필 수 있습니다. 지난 80년 1만 5천3백여건이던 7대도시내의 대형건물과 산업시설이 10년이 지나간 지금 무려 5만3천여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7대도시만을 대상으로 통계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실로 엄청난 증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방재기술과 이에 대한 의식도 높아져 방재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최첨단 방재설비가 곳곳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협회의 홍보활동도 방재의식을 일깨우는 데서 시작해 보다 전문성있는 분야별 자료수집 및 제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재시험소를 설립해 운영해온지 4년여 동안 방재관련 기술과 정보를 보다 체계화, 전문화해가며 국가인정시험 대행으로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했고 국내 방화제품 품질향상과 산업체 유형별 위험관리기술을 개발, 보급해 왔습니다. 방재시험소가 제정한 FILK 인증기준도 업계에서 공신력있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91년 신미년을 맞는 저희 협회는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점검 및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업무를 더한층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국가와 원수손해보험회사 및 특수건물 소유주 여러분에게 보다 차원높은, 진정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종합위험관리 방재기관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정립하고, 이를 위하여 재도약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한해동안에도 협회에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사원사, 특수건물 소유주, 관계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저희 협회업무에 보다 많은 격려와 충고, 협조가 있으시길 기대하며 신미년 한해동안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1991년 새해 아침에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